

# 대학에서의 전공영어강의 수강 경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 진로결정 타입, 고용상태와의 관계 탐색

박 혜 숙<sup>1)</sup>

## 요 약

본고는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 1차 및 7차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 청년층의 대학 재학 중 영어로 진행된 전공과목 수강경험, 고3 때의 경험, 진로결정, 취업 실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설문문항에 응답한 263명은 2010, 8월 혹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였다. 분석결과, 고3때의 사교육경험, 진로결정, 영어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영어강의수강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3때의 수능성취도가 높은 경우가 수업이해도가 높았다. 대학에서의 경험(해외여행, 지도교수멘토링, 수업태도, 영어 공부시간)은 영어전용수업 선택과 관련이 없었으나, 수업이해도에 있어서 여학생인 경우 수업이해도는 높게 나타났다. 영어강의이해도는 영어강의 수강회수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수업의 유용성과 수업이해도는 교수의 영어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진로결정(취업, 대학원진학/ 유학, 기타)과 전공영어강의 수강여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영어전용 수업경험 및 이해도와 고용상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공영어 수업 효과는 전공영역, 교수특성, 교수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효과는 단기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표본수가 충분할 경우, 그 효과를 보기위해서 심도깊은 장기연구가 필요하다.

중심어 : 전공과목 영어수업, 수업이해도, 영어사용비율, 진로결정, 고용상태

## 1. 도입

우리사회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청년실업율은 7.4%로 전체 실업율 3.4%이었으나, 2012년 7.5%이며 (전체 실업율은 2.8%)로써 청년 실업율은 증가추세다(통계청, 2012, 12, 12 발표자료).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주로 대졸 청년실업 문제에 모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주로 대졸 청년실업의 해결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이 대학 재학 중의 진로교육 및 다양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대학재학 중의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의 수강경험이 취업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19위, 2012)는 외형적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

1)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parkhyes@honam.ac.kr



며 그 원인들 중의 하나를 고등교육의 경쟁력 미흡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서병우, 2011). 지식 정보화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은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 및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식창출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양성(홍병선, 2009)과 이들이 산업에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급인력의 양성은 국가 경쟁력이 원천이라는 점과 특히 고급인력의 양성은 대학의 질적 제고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발전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서병우, 2011).

그러나 1980년대 이래 대학졸업자가 과잉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불만이 크다고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박순애, 2010). 특히 박순애(2010)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글로벌 역량의 경우 사기업체가 요구하는 역량수준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

한편 미국산학협회조사에서 나타난 기업이 요구하는 10가지의 개인적 특성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지도력(leadership abilities), 성적, 기술(technical skills), 분석력(analytic skills), 도덕성(ethics), 인간관계, 팀워크, 대화능력, 분석능력, 전산능력, 작문능력 및 지도력이다(서병우, 2011 재인용).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대졸인력 역량 간의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요구수준에 가장 근접한 대졸생의 역량은 전문적 지식으로, 그 외 대부분의 역량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 중에서도 특히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량들의 수준차이가 컸다. 글로벌 시대에 타인과의 협력을 통한 활발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언어사용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편은 영어사용능력의 제고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화 방안을 모색 및 개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수업에 있어서 영어강의 확대이다(강순희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년 때 자료와 대학 4학년 시기인 두 시점의 특성과 해당교육경험과 취업상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글로벌 역량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업경험이 진로결정타입과 고용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관련문헌 연구

###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 수업

국내 대학에서는 교육개방화에 대비하고 특히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단순한 교양영어/실용영어 차원을 벗어나 전공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도입하였다. 국내 대학에서는 그 중의 하나가 내용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업운영을 강화하게 되었다. 영어를 사용한 전공과목 수업(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은 언어와 내용을 가르치는 이중의 효과를 동일한 수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과목 수업은 제 2언어 습득 연구에 의하면, 영어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나 혹은 ‘내용중심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 CBI)’과 관련이 있다. Krashen (1982)에 의하면, 교수의 초점이 의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CBI는 현재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와도 관련이 있다. 제 2언어 습득 혹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내용과 관련된 학습방법은 학문목적영어(EAP)나 내용중심교육(CBI)과 관련한 연구가 있으며 학습자의 제2언어 발달 상태와 배경, 흥미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목적이 언어습득/학습이다. Jordan (1997)에 의하면 학문목적영어(EAP)는 각급 교육현장에서 학습목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되어있다(ETIC, 1975; Jordan, R, 1997; 박혜숙,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학문목적영어(EAP)는 다양한 환경에서, 즉 영어를 모국어로서(영국, 미국, 캐나다 등)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나, 혹은 학교에서 수업언어로 사용하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문목적영어(EAP)는 ‘일반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 EGAP)’와 ‘특수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 ESAP)’로 나눌 수가 있다. 일반학문목적영어는 수업 중 듣기 및 노트정리, 학습전략, 시험전략, 세미나, 토론활동에 해당되며, ‘특수학문목적영어’는 의학, 공학, 경제학과 같은 특정분야에 관련된 언어학습 등이 있다.

‘내용중심언어학습(Content-Based Language Learning)’도 내용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기 에 전공 혹은 내용을 교수하는데 있어서 전공영어, 즉 과학, 수학, 사회과학 등의 내용학습과 관련이 있다. Cummins(1979, 1980)에 의하면, ‘기본적인 대인의사소통능력(Basic Interpersonal Language Skills; BICS)’은 이민해 온 아동의 경우 1~2년에 습득이 가능하나, 보통의 경우 ‘인지학문적 언어능숙도(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는 대상 제2외국어에 몰입된 환경에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수학문제를 푸는 경우 약 5~7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Collier, 1987). 또한 인지학문적 언어능숙도(CALP)는 언어 역할이 인지 및 내용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전공영어강의와 연관이 있다.

‘교과 언어 인지 학습법(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CALLA)’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내용중심교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으로, 내용중심의 교과, 즉 과학,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과목에서 학습자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데 있다(Chamot & O'Malley, 1987). ‘교과 언어 인지 학습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내용의 이해와 더불어 언어능력과 내용관련 개념 습득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인이 전공강좌를 영어로 강의하는 것(영어강의; English-Mediated Instruction 혹은 English medium instruction)을 내용기반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 CBI)와 바꾸어 쓴다고 한다. 또한 Kang과 Park(2003)에 의하면 많은 연구가들은 EMI과 CBI를 동일한 교수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CBI는 원어민이 가르치는 것인 반면, EMI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내용 관련 교수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 또한 CBI에서는 ‘형식(Form)’이 아닌 ‘내용(Content)’이 강조되지만 교수목표는 언어습득 자체가 되는 반면,



대학에서의 전공 영어강의(English-mediated Instruction; EMI)은 언어습득이나 학습이 주 교  
수목표가 아니고, 관련분야의 지식습득이 교수 및 학습의 주목적이 된다고 하겠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어사용정도  
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다. 이중 언어학습이론에 의하면, L2(학습대상언어)를 전적으로 사용하  
는 방법은 문법설명 위주의 분석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런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직접교  
수법(direct method)이나, Asher(1983)의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methods), 자연교수법  
(natural approach; Krashen & Terrel, 1983)등을 들 수 있다. 촘스키의 영향을 받은 이런 교수  
방법은 이해 가능한 입력이 언어습득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이 방법에서는 L2가 교과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하며, 교실은 언어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으로 L2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의 영어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iu, Ahn, Baek, &  
Han, 2004).

그러나 전적으로 L2만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와 생각과의 신속한 연결의 어려움으로 의미획  
득의 어려움, 개념습득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그래서 L1(모국어)이 언어습득에서 유용한 인지  
학습도구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작용접근주의(interactionist learning approach)에서도 L2 입력  
만으로는 언어습득으로 충분하지 않고, 입력이 수용되거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화자와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에서 L1은 필수적인 도구라고 한다(Villamil &  
De Guenero, 1996). L1은 L2의 습득에 있어서 자연적인 과정이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L2를 의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언어학습을 최대화하지 않기 때문  
에 반대한다고 한다(Cook, 2001). 그러나 Cook처럼 Turnbull(2001)도 학습자의 모국어를 L2 언  
어 학습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어로서 제2언어를 배우는 경우, 즉 교실이외의  
환경에서 L2에 노출되는 기회가 드문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경우 L2의 사용을 주장한다  
(Turnbull, 2001; Ellis, 1984). 반면, 단순한 L2에 노출되는 것이 언어습득을 향상시키지는 않는  
다고 한다(Chaudron, 1985; Ellis, 1994; Gass, 1988). 모국어 사용도 학습자의 언어학습 과정의  
특성과 단계에 따라 모국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한다(Stern, 1992). Turnbull(2001)은 특히 문법,  
새로운 활동에 있어서의 배경설명, 훈육관련은 L1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한국인 고등학생대  
상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수업 중 배경설명, 농담, 문법설명을 할 때 한국어(L1)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Ahn, Baek, & Han, 2004).

국제사회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중심의 언어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습  
득 및 학습능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Crandall, 1987),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KAIST, POSTECH,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를 포함하여 국내 여  
러 대학에서는 내용과 언어라는 두 마리토끼를 동시에 얻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개발을  
위한 실용영어(혹 일반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 분야의 지식 습득과 더불어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공영어강의(특수학문  
목적영어; ESAP)를 개설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은 단순히 영어자체가 수업목적이 아닌 전공  
분야의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특수학문목적영어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중심 전공영어강의 수

강경험과 고용상태와의 관련성도 탐색하고자 한다.

경쟁력 강화, 학문의 세계화 등을 이유로 일반 과목에 대한 영어강의의 비중을 크게 늘렸지만, 영어강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세계화시대에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박혜숙, Jacobson, 최지영, 2004; Kang & Park, 2003), 일부 언론에서는 영어전공강좌 확대정책이 영어구사력과 기능적 지식 습득만을 강조하는 정책이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양성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연합신문, 2006.05.04). 그러나 2000년도 초기부터 전공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졸업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만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그 효과에 대하여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에서의 전공영어강좌가 노동시장 이행(취업)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에서의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어떠한가?

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을 수강여부에는 학생들의 성차가 있는가?

나)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을 수업이해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가?

다) 고3 때의 사교육경험,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미래진로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여부 및 고3수능외국어(표준점수)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을 수강여부에 관계가 있는가?

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가?

마) 고3 때의 사교육경험,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미래진로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여부 및 고3수능외국어(표준점수)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이해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바) 성별 및 대학재학 중 해외여행경험여부, 교수의 멘토링, 수업만족도, 수능영어성취도는 영어수업선택 할 가능성과 영어수업이해도에 관련이 있는가?

2. 전공영어 수업경험과 진로결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수업 경험은 진로결정(취업, 진학, 기타)상태와 관련이 있는가?

나) 전공영어 수업 경험과 수업이해도가 취업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를 예측하는 것 관련이 있는가?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및 7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중

7차 년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전용강좌의 경험관련 문항에 대답한 263명이다. 이들은 2010. 8월 혹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대상자 중 남자가 117명(55.9%)이고 여학생, 116명(44.1%)이다. 영어수업을 직접 경험한 경우는 136명(51.7%)이며, 과목이 개설되었으나 수강하지 않은 경우가 76명(28.9%), 그리고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전공 영강을 수강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51명(19.4%)으로 구성되었다.

## 2) 분석방법

두 가지로 분석을 하였다. 영어 전용 전공과목 수업경험에 관한 문항에 대답한 경우(전체 263)을 분석한 경우와 실제 수업이 해당 대학에서 개설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유사하였으며, 본 자료에서는 실제 전공 강좌가 개설된 대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변수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및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로짓모형과 회기모형, 상관관계,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구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을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되는 변수의 평균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수업태도, 수업만족도, 대학에서의 다양한 교수방법 및 교수멘토링을 이용한 수업경험정도(다양한 교수방법) 등이었다. 또한 진로결정, 정규직취업여부가 영어전용수업참여도와와의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코딩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코딩하였고, **고3 시절의 미래직업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 여부**, 정규직 여부에서 해당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은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좋아함, 잘할 수 있음), 고등학교 경험 중 능숙성은 외국어(영어) 표준점수를 이용하였다. 대학에서는 수업태도, 수업만족도, 교수멘토링을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성분으로 간주된 문항들의 평균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 4. 결과

우선적으로 263명 중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136명으로 참여자의 51%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실제 영어로 진행된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전국의 다양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다. 서울, 5개의 광역시, 지역대학, 및 외국소재 대학에 소속하고 있었다(<표1 참고>).

〈표 1〉 설문참여자의 대학분포

대학소재지	Frequency	Percent
서울	44	32.4
부산	13	9.56
대구	3	2.21
인천	6	4.41
광주	3	2.21
대전	8	5.88
경기	14	10.3
강원	1	0.74
충북	7	5.15
충남	12	8.82
전북	3	2.21
전남	3	2.21
경북	12	8.82
경남	6	4.41
외국	1	0.74
Total	136	100

수강과목 수는 평균, 3.5이었으며, 영어수업의 유용성은 평균보다 낮았다(2.9). 수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나(3.51), 실제 수업에서는 영어 사용은 영어를 위주로 약간의 한국어 사용된 경우가 평균적인 추세였다(<표 2> 참고).

〈표 2〉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관련 변수 특성

변수	N	Mean	SD	Skew	Kurtosis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강경험	136	1	0	.	.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강 과목 개수	134	3.50	4.32	3.52	15.23
영어수업의 도움 정도(유용성)	136	2.95	1.02	-0.11	-0.47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진행방법(교수영어)*	136	1.83	0.98	0.93	-0.25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이해수준	136	3.51	1.10	-0.22	-0.78

주) \*영어사용 비율은 낮은 문항번호가 영어만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1) 영어로만 진행, 2) 영어를 주로 하고 한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 3)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4) 한국어를 주로 하고 영어를 부분적으로 사용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수업을 선택할 가능성과 학교에서의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생성한 변수의 특성은 <표 3>와 같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표 3〉 학교 및 수업경험 관련 문항특성

변수	문항특성	문항수	알파
수업태도	수업태도-출석	5	0.71
	수업태도-복습		
	수업태도-예습		
	수업태도-과제		
	수업태도-강의집중		
영어를 위한 긍정적 태도(고3)	영어_흥미있다	2	0.74
	영어_잘한다		
지도교수멘토링	지도교수와 면담-학업	3	0.83
	지도교수와 면담-진로		
	지도교수와 면담-기타		

다음은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 1. 대학에서의 전공영어강의 현황은 어떠한가?

설문에 참여한 263명 중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는 학생은 136명(51%)에 해당되었고, 이들 중 성차에 따른 수강할 가능성(log-odd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업이해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참조).

〈표 4〉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특성

		<i>N</i>	<i>Mean</i>	<i>SD</i>	<i>p</i>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이해수준	0.00	58.00	3.97	1.01	0.00
	1.00	59.00	3.27	0.98	
	Total	117.00	3.62	1.05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의 도움 정도	0.00	58.00	3.07	1.04	0.24
	1.00	59.00	2.85	0.98	
	Total	117.00	2.96	1.01	

성별을 통제한 후의 고3 시절에 조사한 미래직업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여부, 영어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영어수능성적(표준점수)은 전공 영어강의 수강여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표 5> 참조).



**〈표 5〉 고등학교 경험이 대학에서의 전공영어 수업을 수강할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B	S.E.	Wald	df	Sig.	Exp(B)
성별	-0.02	0.36	0.00	1.00	0.95	0.98
미래직업결정h3	-0.18	0.41	0.20	1.00	0.66	0.83
영과외경험h3	0.08	0.35	0.06	1.00	0.81	1.09
고3_영어(흥미&잘함)	-0.29	0.24	1.37	1.00	0.24	0.75
수능05_표준점수	0.00	0.01	0.32	1.00	0.57	1.00
Constant	0.09	0.79	0.01	1.00	0.91	1.09

고3 때의 사교육경험,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흥미 & 잘할 수 있음), 미래진로결정여부, 영어사교육 경험여부 및 고3수능외국어(표준점수)의 효과가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이해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수능영어성취도를 제외하고 고3 시절의 미래직업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여부, 영어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전공 영어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능성적이 높은 경우, 영어강의 수업이해도는 높았다(<표 6> 참고).

**〈표 6〉 고등학교 경험이 대학에서의 전공영어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2.72	0.42		6.42	0.00
성별	-0.37	0.19	-0.18	-1.91	0.06
미래직업결정h3	0.24	0.23	0.10	1.05	0.30
영과외경험h3	0.09	0.18	0.05	0.49	0.62
영어(흥미 및 잘함)	0.02	0.13	0.01	0.14	0.89
수능05_표준점수	0.01	0.00	0.33	3.16	0.00

다음은 대학에서의 수업 중 교수의 영어사용비율, 학습이해도, 영어수업 유용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결과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수강회수와 수업이해도는 정적인 상관관계( $r=0.29$ )를 나타냈다.

교수의 영어사용수준과 수업이해도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실제 코딩은 1) 영어를 전적으로 사용함, 2)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한국어는 부분적으로 사용함, 3) 영어와 한국어반반사용 4) 한국어를 주로사용하고 영어는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 되어 있기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수업이해도는 높았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유용성에 관하여는 수강과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수업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표 7〉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영어강의 특성에 대한 상관

변수	1)	2)	3)	4)
1) 영강수	1.00	0.36 **	-0.24 **	0.29 **
2) 영강전공과목 유용성	0.36 **	1.00	-0.22 **	0.37 **
3) 교수영어사용 비율	-0.24 **	-0.22 *	1.00	-0.20
4) 이해수준	0.29 **	0.37 **	-0.20 *	1.00

주) 영어사용 비율은 낮은 문항번호가 수업 중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시절의 전공영어강의 수강 가능성에 미치는 성별, 해외여행 경험, 지도교수와의 관계(멘토링 효과), 그리고 수업태도 및 자율공부시간과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참고).

〈표 8〉 대학에서의 경험과 전공영어강의 수강 가능성과의 관계

	B	S.E.	Wald	df	Sig.	Exp(B)
성별	-0.19	0.46	0.16	1.00	0.69	0.83
해외경험여부	-1.52	1.13	1.83	1.00	0.18	0.22
M_교수멘토링	-0.17	0.22	0.60	1.00	0.44	0.84
수업태도	0.40	0.43	0.87	1.00	0.35	1.49
영어공부시간	-0.04	0.03	1.38	1.00	0.24	0.96
Constant	-1.62	1.60	1.04	1.00	0.31	0.20

영어 전공 수업 선택가능성과는 달리 대학생 생활 중 경험, 즉 해외경험 여부, 지도교수의 멘토링, 수업태도, 자율 영어공부시간의 변인중 성별의 효과( $b=0.71$ ;  $\beta=-0.3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여학생의 수업이해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한편 지도 교수와의 관계가 빈번할수록 전공영어강의에 대한 이해도( $b=0.21$ )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성에 이르지 못하였다(〈표 9〉 참고).

〈표 9〉 대학에서의 경험이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i>b</i>	<i>SE</i>	<i>beta</i>	<i>t</i>	<i>p</i>
(Constant)	2.68	0.74		3.62	0.00
성별	-0.71	0.24	-0.35	-2.89	0.01
해외경험여부	0.21	0.39	0.06	0.54	0.59
지도교수멘토링	0.21	0.11	0.23	1.95	0.06
수업태도	0.34	0.20	0.20	1.73	0.09
영어공부 시간	-0.01	0.01	-0.08	-0.73	0.47

2.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공영어강의 수업 경험이 미치는 효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수업 경험여부와 진로결정타입(취업, 대학원진학/유학, 기타)과의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결정타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진학(대학원 및 유학)결정, 기타 그룹 경우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을 수강할 확률이 취업그룹보다 더 높았다. 이는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이 제공되는 경우(n=212)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0-1><표 10-2> 참조).

**<표 10-1> 진로결정양태(취업, 대학원진학, 유학)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수업과의 관계**

		수강함	수강안함	강좌개설안됨	전체	
취업	Count	105.00	72.00	40.00	217.00	
	Expected Count	112.21	62.71	42.08	217.00	
유학	Count	16.00	2.00	6.00	24.00	
	Expected Count	12.41	6.94	4.65	24.00	
군입대&기타	Count	15.00	2.00	5.00	22.00	
	Expected Count	11.38	6.36	4.27	22.00	
		Count	136.00	76.00	51.00	263.00
		Expected Count	136.00	76.00	51.00	263.00

주)  $\chi^2=0.025$

**<표 10-2> 진로결정양태(취업, 대학원진학, 유학)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수업과의 관계**

		수강함	수강안함	강좌개설안됨	
취업	Count	105.00	72.00	177.00	
	Expected Count	113.55	63.45	177.00	
유학	Count	16.00	2.00	18.00	
	Expected Count	11.55	6.45	18.00	
군입대&기타	Count	15.00	2.00	17.00	
	Expected Count	10.91	6.09	17.00	
		Count	136.00	76.00	212.00
		Expected Count	136.00	76.00	212.00

주)  $\chi^2=0.04$

나) 전공영어 수업 경험과 수업이해도가 취업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를 예측하는 것 관련이 있는가?

실제 영어강의가 제공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한 경우는 55명(남자= 22명, 여자=33명)이었다.

실제 전공과목 영어수강 경험여부와 임금을 받고 일하는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를 대상자(N=43)로 직장에서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정규직 고용가능성에 관련하여 전공영어수업 경험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참고).

〈표 11〉

전공영어강좌		안받음만	영강수업받음	Total	
정규직	0	Count	10	12	22
		Expected Count	9.72093	12.27907	22
	1	Count	9	12	21
		Expected Count	9.27907	11.72093	21
Total		Count	19	24	43

주)  $\chi^2=0.864$

또한 실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n=136)명 중 현재 고용상태이며, 전공영어강의를 수강한 경험자를 대상(n=34)으로 고용상태(정규직여부)를 과거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수업이해도가 예측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공과목 영어로 진행된 수업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12> 참고).

〈표 12〉 고용상태에 미치는 전공영어 수업 이해도

	B	S.E.	Wald	df	Sig.	Exp(B)
영어_수업이해	0.06	0.34	0.03	1.00	0.86	1.06
Constant	-0.20	1.26	0.03	1.00	0.87	0.82

## 5. 논의

글로벌 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된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교과에 대한 강좌가 점차 확대하여 개설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가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본 경우는 드물다. 중국 대학을 표본으로 조사한 경우이나, 2010년 (7차 자료)의 실제 설문문항에 응답한 263명으로, 고등학교 경험 및 대학경험관련 변인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수능영어 성취도가 높은 경우와 여학생이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어강의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학습자가 수업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Krashen의 comprehensible input이론과 연결지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한국인 학생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수업언어는 한국어이기에 한국어를 사용한 수업이 더 효과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서 교수/수업 언어(instructional language)로서 영어로만 가르칠 경우, 학습자의 이해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유로 수업만족도/유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학생들의 불평이 있었다(박혜숙, 2006a).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수준은 영어강의 수강횟수, 교수의 영어 사용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수업의 유용성과의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어서 각 대학에서 영어 100% 전용수업 실시에 관한 정책 시행차원에서는 고무적이다.

과거 국내 한 대학의 경우, 초기에 학생들의 영어 때문에 수업이해도가 낮아진다는 이유로

100% 영어전용수업을 위하여 특정 대학에서는 수업 전, 후, 쉬는 시간 및 학생 상담시간(office hour)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즉 수업 중에는 영어로만 사용 하면서 연장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교수는 수업 내용을 우리말로 다시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한 한국식 sheltered instruction은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박혜숙 2006),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교수의 영어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의 유용성과 더불어 수업이해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영어전용수업 시행 정착에 대한 고무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세부적인 전공영역, 교수의 영어능숙도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심도 있는 탐색은 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공 영어전용수업을 수강하는 사례수가 많지 않은 이유(?)로 진로(진학/취업)관련하여 대학에서의 전공영어수업 경험과 수업이해도가 진학/취업, 및 고용상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례수 보강이 예측되는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수에 따른 이해도와 교수의 수업언어사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결정 및 고용상태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연구를 시행해 봄직하다.

❖ 참고문헌 ❖

- 강순희, 서혁, 신상근, 이종원, 이현주, 최진영(2007). 사범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1(20), 637-656.
- 박순애(2010). 인재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중심의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행정 제20권 제3호 (2010년 12월) pp.171-197
- 서병우 (2011).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의 이론연구. 취업진로연구, 1(2), 69-90.
- 박혜숙(2006a). 강의언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7(3), 319-337.
- 박혜숙(2006b). 공과대학에서의 전공 영어강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33, 89-119.
- Blanchflower, D, Richard, G,& Freeman, B.(2000). "Introduction". in David G. Blanchflower and Richard B. Freeman. ed.,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Cummins, J. (1979).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linguistic interdependence, the optimal age question and some other matter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19:197-205
- Cummins, J. (1980). The cross-lingual dimensions of language proficiency: Implications for bilingual education and the optimal age issue. *TESOL Quarterly* 14, 175-187.
- Collier, V. P. (1987). Age and rate of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for academic purposes. *TESOL Quarterly*, 21, 617-641.
- Kang, S. & Park, H. (2005).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Korean Engineer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 155-174.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 Krashen, S. D.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U.S.A.: Laredo Publishing Co. Inc.

## ❖ Abstract ❖

Relations among college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their last year high school experiences, career decision type, and employment status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taking English-mediated content area subject courses, their high school experience, career decision types, and status of employment using the data from the 1st and the 7th wave of KEEP(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The selected 263 subjects had responded to a question regarding the experience of taking English-mediated (medium) subject courses (EMSC) and they were expected to graduate in either August 2010 or Feb 2011. These students' last year high school experiences were used to predict the log-odds of taking the EMSC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lecture/instruction. These experiences include receiving private education/tutoring, the career decisions they made, their attitudes toward English, and their English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s. Data analysis shows that only the English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dicting their understanding of EMSC lecture. **Such college experience variables, as oversea travelling, advisor's mentoring, learning attitudes, and English study hou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og-odds of taking EMSC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course lecture. However, female's level of understanding the EMSC lectur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the EMSC lecture and the number of EMSC taken and also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the EMSC lecture and usefulness of the EMSC.** There were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types (continuing with graduate studies vs. working) and the EMSC take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types and the understanding of EMSC lectu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taking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 may vary depending on the subject/domain area, characteristics of instructor, and teaching methods. Therefore, future researchers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Since the effect of students' taking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may not appear immediately, an indepth longitudinal study is recommended.

**Key words :**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scholastic aptitude test, career decision, employment status